



윤석열 대통령 부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 한국어로 키워나가는 우리들의 꿈! -

- ◆ 일시/장소 : 2023.6.22.(목) 15:00~15:55 / 하노이국가대 외대
- ◆ 대상 : 초중등 한국어반, 대학 한국어학과, 세종학당 학생 등 70여명
- ◆ 주최/주관 : 문체부/하노이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KF하노이사무소, 세종학당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23년 6월 22일, 하노이국가대학교에서 개최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였다.

-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초중등 한국어채택학교 학생 9명,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27명, 세종학당 학생 10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하노이국가대 총장 환담, 베트남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한국어 교재 및 학생 활동 전시물 소개를 비롯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계기과정, 한국 유학취업 등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베트남은 2021년 한국어를 초중등학교의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으며, 초중등학교-대학-일반(세종학당)으로 이어지는 한국어교육 열기와 수요가 굉장히 높다.

- 베트남 초중등 한국어채택학교(제1, 제2, 동아리 포함)는 약 80개교로 11,500여명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은 1993년 1개 대학에서 53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 베트남은 한국어가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베트남에는 22개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 수강 학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도 높다.

□ 대화에 참석한 학습자들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어를 통해 꿈꾸는 자신들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하노이외대 부속고등학교 12학년 응웬 하 링 학생은 올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6급을 달성했고, 향후 한국유학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은 꿈을 야심차게 밝혔다.

○ 다른 학습자들은 정부초청장학생(GKS)으로 선발되었으며 한국 유학 후 한국어 교사로 활동 계획, K-POP과 한국 드라마를 듣고 보는 즐거움, 한국과 베트남 사이를 연결하는 통번역가 등 자신들의 한국어학습 과정과 미래 꿈을 이야기하였다.

□ 한국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베트남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 파견,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교원 인건비 및 교과서 지원, 문화수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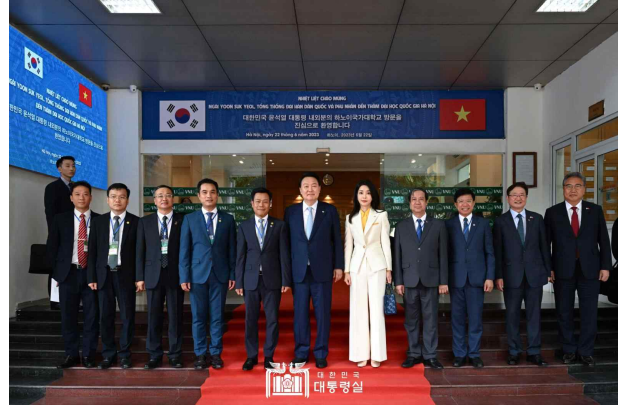
○ 특히, 베트남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과서가 없어 어려운 실정으로 제1·제2 외국어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 학생들은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고 학년별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체계적·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 이번 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한국어교육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한국어교육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하노이국가대학교 총장과 한담



주요 참석자와 단체사진



베트남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연주
(하노이국가대 부속중학교 학생)



한국어 교재 소개
(하노이국가대 부속고등학교 학생)



대화 장소 입장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



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



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



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